

# “오늘 예산·패트법안 상정”...국회 전운고조

### 4+1 협의체 선거법·공수처 논의 실무회의 합의 도출 속도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결과 따라 막판 극적 빅딜 가능성도

정기국회 종료가 이를 앞두고 다가온 8일 여야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 이어서 9일 오전까지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11일부터 국회를 다시 가동하도록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했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변수는 9일 이뤄질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협상의 지를 밝힌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신형 철회와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 잠정합의안이 되살아나 여야가 정기국회 막판 극적인 ‘빅딜’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일단 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되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은 한국당까지 참여한 테이블에서 더 논의한 뒤 이후 상정·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이전에는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9일 오전 원내대표 선출 후 새 원내사령탑이 의원들의 지지를 모아 오후 본회의 이전에 입

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 후보 가운데 강석호·김선동 의원은 비교적 협상에 열려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대표로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협상이 시작되면 한국당은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기한을 연장해 상정 시점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과 본회의가 연달아 예정된 ‘운명의 9일’을 앞두고 여야는 물밑에서 분위기를 살피며 향후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비밀리에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양호준 사무총장, 대안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당 원내대표 ‘안갯속’

### 오늘 선출...강석호·유기준·김선동·심재철 후보 등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9일 진행되지만 ‘유권자’인 한국당 의원들의 표심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내년 총선에 따라 임기가 5개월여에 불과한 새 원내대표직을 놓고 강석호·유기준·김선동·심재철(기호순) 의원이 이례적으로 4표전을 벌이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어느 후보도 아직 ‘대세론’을 형성하지 못했다. 특히 당내에서는 현재 4명의 후보가 ‘3강 1약’, ‘2강 1중 1약’의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등의 전망이 나온다.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등장하지 않고, 1·2위 득표자 사이에 결선 투표가 치러질 거란 예상도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와 같이 판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선거 당일 각 후보의 정경발표가 표심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의원 간의 친소관계를 넘어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처리 시나리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게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잘못 대응하면 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 절반은 처음부터

지지 후보를 정해놓았을 것이고, 절반은 정경발표를 보고 정할 것”이라며 “당일 호소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원내대표 경선은 9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정경발표와 투표 등의 순으로 치러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까지 이어질 경우 2시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되면 강행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과 동시에 여야 협상에 나서 이를 저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선 후보 4명은 모두 자신의 지역구로 가지 않고 서울에 머무르며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대면 접촉을 하면서 막판 물밑 유세전을 벌이는 데 주력했다. 당내에서는 각 후보의 패스트트랙 해법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느냐가 관건이라는 예상과 함께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의중, 이른바 ‘황심(黃心)’이 어느 후보에게 실리는지에 표심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108명 의원 중 초선이 43명, 재선이 30명으로 73명에 달하는 점에서 초·재선의 선택이 승패를 가를 거란 예상도 있다. 다만 한 초선 의원은 “초선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청문 리스크’ 악재 될라...與 개각 ‘총선 차출’ 최소화 전망

### 적극적 차출론서 기류변화 “차출 성격 장관교체 없을 수도”

추미에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후속 개각의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개각을 통한 ‘총선 차출’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장관급 인사들의 ‘총선 차출론’을 적극적으로 띄워왔던 여당의 기류가 신중론으로 돌아서고 있는 데다, 청와대도 비슷한 분위기를 보이고 때문이다. 8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

제가 일단락되면 당·정 체인을 가동해 총선 차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4·15 총선의 공직자 사퇴시한(내년 1월 16일)에 앞서 이달 중·하순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정이 여권 전반의 인력 배치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이다. 이때 민주당은 ‘총선 차출’ 요청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적정한 선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요청할 예정”이라며 “본인 동의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적극적 차출론과는 사뭇 다른 기류다. 민주당은 그동안 후반기로 접어든 문제

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전문성과 인지도가 있는 장관급 인사들의 총선 출마 필요성을 부각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원 춘천 출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서울), 정경두 국방부 장관(경남 진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대전) 등이 차출 대상으로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들의 출신 지역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비공식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차출론 기류 변화는 ‘인사청문 리스크’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이번 개각 명단에 국회 동기가 필요한 국무총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총선을 목전에 둔 개각인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검증이 예상된다. ‘인사청문 리스크’는 곧바로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 또한 청와대 ‘하형 수사’ 및 ‘김철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체 여론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후임자 불색과 관련한 문제 등 다양한 변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총선 차출용 개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현직 장관들을 총선에 내세우려면 그 후임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감안해 지금 검증 등 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이병훈 前광주부시장 ‘더불어 사는 경제...’ 출판기념회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자 자신의 책 ‘더불어 사는 경제 나누는 일자리’ 출판기념회를 지난 7일 조선대학교해오름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회에는 각계 인사, 주민, 당원, 지지자 등 5500여 명이 찾았다. ‘더불어 사는 경제 나누는 일자리’에는 이 전 부시장이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한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느꼈던 사회와 골목경제 살리기 방안, 미래산업과 같은 현안들이 담겨있다. 특히 가수 유열의 사

회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는 귀빈 축하를 대폭 줄이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민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30여분간 토크쇼로 진행됐다. 이병훈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

# 박병중 이사장 내일 ‘전남 경제 살리기’ 정책세미나

(사)미래해양수산포럼 박병중 이사장(전고흥군수)이 오는 10일 보성군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제는 경제다”라는 주제로 ‘전남 경제살리기 정책세미나’를 한다. 박 이사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구려 정치논쟁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경제를 부흥시켜 살리는 강진·장흥·보성·고흥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부겸 국회의원(전 행정부 장관), 이기호국회의원(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 문춘단 강진군의회 부의장, 김선옥 전 장흥투데이 대표, 장동범 전라남도 수산 조정위원, 박창규 전농민회총연맹 고흥군민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률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서구 마루동 도로점 땅 378㎡ 장기투자에 좋은 대지임 5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매최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좋은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함평군 손불면 신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땅 450㎡ 건물 110㎡ 매도 2억8천
- 무안 동탄면 영산강점 48900㎡ 편선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9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 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철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터)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찰 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건물**

- 운암동 아파트상가지하 205㎡ 매입 2억 참고 사무실 적합 은행7천 매도1억6천
- 충장로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월산동 외곽도로 농협 부근 6차선점 244㎡ 건물신축적합 13억2천
- 산수동 공무원아파트부근 도로점 땅 305㎡ 건물 519㎡ 5천에 180 임대중 12억
- 농성동 상공회의소 뒤편 소방도점 상가주택 땅 156㎡ 건물 140㎡ 4억2천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 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물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화순군 동면 서성제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원룸-대지 등과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임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명의면) 11050㎡ 다세대-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림주택지 8307㎡ 위치 전망 좋은 6억4천
- 파산중인 주택 급매 거래등 소방도점 땅 142㎡ 2층집 164㎡ 집 총용 1억6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 다세대 적합 은행 6억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